

濟州島民의 信仰體系와 巫俗

玄 容 駿*

1. 信仰體系의 變遷

高麗 이전 제주도인의 信仰은 巫俗信仰의 단일체계였다고 생각된다. 그것은 『新增東國輿地勝覽』 卷之三十八 濟州牧 風俗條의 기록만으로도 추정이 가능하다. 이 기록에 보면 「尙淫祀」란 題下에 花盤, 然燈, 廣壤堂, 遮歸堂祭, 蛇神崇拜 등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다.

花盤이란, 산·숲·내·못·언덕 등 곳곳에 神祀가 마련되어 있는데, 매해 정월 초하루부터 보름까지 무당들이 神旗를 들고 굿을 하며 마을을 돌면 사람들이 다투어 財錢을 바치고, 이것으로 그 神祀의 굿을 하니, 이름이 花盤이라는 것이다. 이 花盤은 「굿돌이」의 吏讀表記로서, 심방들이 오늘날 걸궁하듯 굿을 하며 마을 집집을 돌아 모은 財錢으로 마을의 당굿을 했다는 것이다.¹⁾ 다음, 然燈은 2월 초하루에 歸德·金寧 등지에서는 木竿 12개를 세워 神을 맞이하여 祭를 지내고, 涯月 사람들은 뗏목을 말머리와 같이 만들어 비단으로 꾸미고 躍馬戲를 하여 신을 즐겁게 하니, 이를 然燈이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영등굿의 당시 모습을 기록한 것으로, 이 때 躍馬戲 곧 폐물이놀이를 했음을 알 수 있다.²⁾

위의 두가지로 巫俗行事가 성행했음을 알 수 있는데, 廣壤堂과 遮歸堂祭의 기록을 보면 그 巫俗信仰이 男女共有的 것임을 알게 한다. 그 기록은 「또

* 제주대

1) 玄容駿. 「花盤考」. 『韓國民俗學』 9, 民俗學會, 1976, pp-87-92.

2) 玄容駿. 「躍馬戲考—영등굿에서의 競漕民俗」. 『延岩 玄平孝博士 回甲紀念論叢』, 螢雪出版社, 1980, pp. 679-698.

봄과 가을에 남녀가 무리를 지어 廣壤堂 遮歸堂에 술과 고기를 올리고 신에게 제사했다. (又於春秋 男女群聚 廣壤堂 遮歸堂 具酒肉祭神)』라고 되어 있다. 廣壤堂이나 遮歸堂은 도내에서 유명한 神堂이었는데, 이들 당에서 男女群聚하여 제 지냈다는 것을 보면 巫俗信仰은 男女 가릴 것 없이 도민 전체의 신앙이었음을 알게 한다.

이러한 巫俗 단일 신앙체계에 고려 文宗 12년(1058) 法華寺가 준공됨으로써 佛教가 포교되고, 1273년부터 元이 지배하기 시작하자 元의 佛教가 수입되어 水精寺·元堂寺 등이 창건되면서 불교가 번져갔다. 『新增東國輿地勝覽』에 수록된 사찰 수만도 15개소가 되니 불교가 상당히 융성한 듯하다. 그러나 이 때의 불교는 土俗性이 매우 짙어서 巫俗信仰과 충돌관계에 있지 않고 오히려 相補關係에 있었던 것 같다. 그것은 朝鮮朝 肅宗 28년(1702년)에 牧使 李衡祥이 사찰과 신당을 동시에 파괴한 사실로 추정이 가능하다. 金錫翼의 『耽羅紀年』에 보면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三邑 淫祀와 佛寺 130여개소를 불살라 없앤 다음, 巫覡 400여명을 잡아다 곤장으로 벌을 주고 歸農시켰다.」

아무리 배불정책하의 관리지만, 타지방의 유례없이 신당과 불사를 동시에 파괴한 것을 보면 양자를 동일시할 만큼 불교가 土俗化됐던 것으로 보인다.

이 파괴사건 이후 200여년동안 佛教의 황무지가 되었다가 1908년부터 재포교되어 불교는 재흥하게 되었다.

한편 1899년에는 天主教가 전교되어 辛丑年(1901) 聖敎亂을 거칠 정도로 도민과 충돌을 거쳐 정착했고, 1908년에는 기독교가 전교되어 기존 신앙과 충돌하면서 교세를 펴 갔다.

또한 해방 이후에는 飯山敎系, 奉南敎系, 기타 宗團의 新興宗教가 들어와 일부 도민의 신앙의 의지처가 되고 있다.³⁾

이처럼 巫俗 단일체계의 信仰 위에 불교·천주교·기독교가 들어와 三大宗教로서 자리잡아 혹은 相補 혹은 충돌관계로 정립되게 되고, 巫俗은 완전

3) 李康五, 「新興宗教」, 『韓國民俗綜合調查報告書(濟州道篇)』, 文化財管理局, 1974, pp. 126-156 參照.

민간신앙으로 가라앉게 되었다.

한편, 朝鮮 太祖 元年(1392)에는 濟州鄕校가 설립되고, 太宗 16년(1416)에는 大靜・旌義鄕校가 설립되어 남성사회에 유교교육을 보급시켜 갔다. 그 후 여러 書院과 書堂들이 설립되어 儒學敎育이 확산됨에 따라 남성사회에서는 전통적 巫俗信仰을 점차 迷信視하게 되고, 冠婚喪祭는 물론, 部落信仰 家神信仰 등을 유교식으로 바꾸어 儒敎祭式化하게 되었다. 그래서 남성은 儒敎, 여성은 巫俗이라는 二重民間信仰構造 현상이 형성되었다. 그러나 이 양자는 표면적으로는 충돌관계인 듯이 보이면서도 내면적으로는 相互補完關係에 있어 양자가 합쳐져 완전한 民間信仰體系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2. 信仰體系와 巫俗

위에서 제주도민의 信仰體系의 變遷過程을 말했거니와 이번에는 오늘날의 信仰體系와 巫俗의 위치를 살피기로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각 종교 인구의 統計的 考察이 요구되는데, 그 통계는 제주도의 統計年度를 이용하는 길밖에 없다. 다른 데서 종교단체현황의 통계를 한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제주도에서는 1960년 이후 계속 통계년보를 발간하고 있지만, 각 종교 신도수의 통계는 1977년도까지 해서 그 이후는 중단해 버렸다. 그 다음부터는 사찰 및 교회수와 교직자수만 통계하고 있다. 그 이유를 물어 보았더니 신도수의 통계는 매우 애매하여 통계의 의미가 없을 것 같아 중단했다는 것이다. 이로 보아 이미 나온 신도수의 통계도 정확한 것이 아님을 짐작할 수 있으나 부득이 이 통계를 이용할 수 밖에 없다. 다음은 신도수 통계가 나와 있는 것으로 어느 연도의 것을 대상으로 논의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되는데, 생각 끝에 여기서는 1973년말 현재의 것을 대상으로 삼기로 했다. 그 이유는 濟州觀光綜合開發計劃이 이 해에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 확정 발표했기 때문이다. 이 계획이 발표되기 이전과 이후는 제주도민의 구성에 상당한 변동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계획이 발표되면서 관광지 개발과 관광사업을 위해 외지인의 유입이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금이라도 순수한 제주도민의 종교구조를 보기 위해 1973년 말의 통계를 분석하고자 한다.⁴⁾

이 통계에 따르면 제주도내에 종교는 천주교, 기독교, 불교, 수운교, 기타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신도수는 72,580인으로 되어 있다. 아 숫자는 당시 제주도 인구 390,450인에 비하면 18.58%에 해당된다. 따라서 제주도민은 18.58%가 공인종교를 신앙하고 나머지 81.42%는 무종교인이 되는 셈이다. 이 무종교인은 바로 民間信仰層이다.

이 민간신앙층은 위에서 잠깐 언급한 것처럼 남·녀별 二重構造로 되어 있다. 남성들의 儒敎的 祭儀와 여성들이 巫俗信仰이 그것이다. 남성들은 조상숭배의 喪禮, 忌祭, 節祀, 墓祭나 儒式部落祭인 醺祭, 家神信仰인 土神祭 등의 제관이 되어 유교식으로 엄숙히 지냄으로써 그들의 종교심성을 의지하고 있다. 한편 여성들은 남성이 주재하는 유교적 제의의 준비를 하고, 그 제의를 지켜보면서도 이에 만족하지 않아 귀양풀이, 시왕맞이, 무혼굿 등 조상숭배와 관련된 곳을 심방을 빌어서 하고, 巫俗部落祭인 당굿을 하고, 철갈이, 맹감 등 가정 신년제를, 심방을 빌어서 한다.

이렇게 보면 남녀의 완전 二重構造信仰 같지만, 남성들의 유교적 제의에도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巫俗信仰이 습합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집 안에서 조상숭배의 제의를 할 때 巫俗神인 문전신에 대한 문전제, 조왕신에 대한 고사, 칠성신에 대한 고사를 행하고, 醺祭에서도 巫俗的 여러 雜神에 대하여 제의를 하는 데가 많고, 또 본향당신에게 별도로 제를 지내는 데도 있다. 이러한 것을 종합해 보면 남성의 유교신앙도 그 제의형태만 유교식화했지, 근본 신앙심 의는 巫俗的인 것이다. 따라서 남녀의 신앙 의례는 상호 보완적인 것이며, 동일한 무속 근원에서 나온 것이라 해야 한다.

다음은 18.58%인 공인종교 신앙층으로 돌아가 그들의 종교별 신도수를 통계로 보자.

이 통계에서 우리는 두 가지의 커다란 사실을 발견한다. 하나는 불교의

4) 『제14회 통계연보』. 제주도. 1974를 이용하는 것임.

宗教別 信徒數統計

1973. 12. 31 현재

종 교 별	신	도	수
	계	남	녀
천 주 교	11,511	4,809	6,702
기 독 교	12,681	4,964	7,717
불 교	36,480	12,612	23,868
수 운 교	3,728	1,543	2,185
기 타	8,180	3,014	5,166
계	72,500	26,942	45,633

「제14회 통계연보」, 제주도, 1974에 의함.

신도수가 36,480인으로서 전체 신도수 72,500인에 대하여 50.32%가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신도수를 성별로 보면 총 여신도수 45,633인은 총신도수의 62.94%나 되어 여신도가 절대 다수라는 것이다.

불교 신도수가 전 신도수의 과반수가 된다는 것은 불교에 도민의 신앙심성을 영합하는 어떤 요소가 있기 때문이라 생각되고, 여신도가 절대 다수라는 것도 이들 종교들이 여성의 신앙심과의 결부되는 어떤 요소가 있음을 생각하게 한다.

필자는 제주도 해촌의 생활문화를 살피기 위하여 1968년에 北濟州郡 朝天面 北村里와 濟州市 龍潭洞을 조사한 일이 있다. 두 마을의 종교 신앙 세대수는 전체의 14.4%였고, 이를 종교별로 보면 불교 신도가 12.2%, 천주교 신도가 1.2%, 천리교 신도가 0.2%, 천지대안교 신도가 0.3%였다. 그리고 이들 신도들은 천주교를 제외하면 거의 노년층이었으며 교육정도는 거의 무학이었다. 이 신도들의 종교심성을 보기 위하여 巫俗行事를 했는지 여부를 조사해 본 결과 천주교 신도를 제외하면 80%가 이상의 신도가 1년 동안에 크게든 작게든 무속행위를 하고 있었다.⁵⁾ 그러니 천주교, 기독교는 무속과 충돌관계의 것이지만, 불교를 비롯한 일부 신흥종교들은 무속신앙과 상통하는 요소가 있음을 알게 된다. 제주도의 종교 신도에 불교 신도수가 많고 또

5) 玄容駿, 「濟州島 海村生活의 調査研究Ⅱ」, 『國文學報』3, 濟州大 國語國文學會, 1970, pp. 20-48.

전체적으로 여성신도수가 절대 다수인 이유도 이러한 데 연유한 것이라 해석된다.

사실 불교 신도들의 경우를 보면 일부 엘리트급의 신도는 무속신앙을 미신시하여 무속의례를 하지 않지만, 일반신앙층 특히 여성신도들에는 마을 당굿에 참여도 하고, 장례 때 귀양풀이도 하고, 家屋新築때 성주풀이도 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일부에서는 스님과 심방 중 어느 쪽이 더 효험이 큰가를 생각하여 효험이 큰 쪽을 택하는 이들도 있다. 이러한 경향은 일부 신흥종교 신도들에게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그래서 병을 고치는데 심방의 굿이 나온가, 어느 신흥종교가 나온가 하는 소문에 따라 離合集散을 되풀이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종교 신앙층은 심히 現世利益的, 功利的이어서 巫俗信仰이 그 기반을 이루고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유동적 종교 신앙층까지 합치면 巫俗的 信仰層은 도민의 81.42%가 아니라, 그것을 훨씬 상회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 제주도민의 信仰體系에 있어 巫俗의 위치는 절대적이라 아니할 수 없다.